

안 그래픽스
디자인·인쇄·싸인
모든 종류의 인쇄물 및 싸인 제작!
안희탁 스타파노
404.717.9897

SB 건축 & 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플러밍, 텍크, 전기공사
용접, 철구조물 수리 제작
678-599-0200
방성호 크레센시오

골든스텝 꽃집
경혼식꽃 전문
각종 행사 및 기념일
서재옥(토마스), 서애영(데레사)
770-992-1797

회계법인태평양 (구 시원회계법인)
정시욱 루뽀 CPA
770-817-9600
3175 Satellite Blvd., Suite 325, Duluth, GA 30096

오즈냉동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유스티노)
770-910-5656

Smile DENTAL GROUP
스마일 원 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Suite #203
Suwanee, GA 30024
김세희 소화테데사

KELLER WILLIAMS
오현정 부동산
유리안나 Juliana Oh
Associate Broker
678-908-4945

아세아 여행사
미셸 박
404-819-9227
(카톡, 텍스트)
michellehpark@hotmail.co

리버밴드 오토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3322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6 Office 770.623.5940

SO GOOD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전문점)
www.sogoodbridal.com 470-545-2640
www.sogoodbb.com 678-580-2181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FARMERS INSURANCE
자동차/집/사업체/생명
WC/메디케어/IRA/연금

공항서비스·대리운전·관광안내·회사어카운트
올림픽 콜리무진
T. 770-696-7517 T. 678-699-5462
T. 010-5906-8945(한국에서)

로렌 배 보험
(모니카)
470-282-1654
스와니 아씨 상가

VINEYARD REALTY
"부동산 과 용자를 한국에서"
조셉김 678-361-6230
GMC용자 켈리김 770-634-5646

770-614-1738
성물점 GIFTS
GOLD·CROSSES·REPAIRS
·십자가, 선상 ·금, 은, 주문제작
·성화, 묵주, 책 ·신발수선
Suwanee Wal-mart 내 ·티-셔츠 프린팅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배용자(루시아)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조앤 리 부동산
주택·상가·렌트·관리
678.770.1136
E-mail: Realtorjoanne@gmail.com
Broker Joann Lee (아네스)

TOP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404-966-1919 남기원(요한)

오약국
470.223.4775
오민환 약학박사 존스크릭 H-Mart 건너편,
(파비아노) Bank of America 뒷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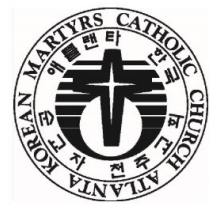
본당 성물방 시간:
매 주 (일) 오전 9시 30
분부터 오후 1시까지
(예약 주문/상담가능)

미소 치과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Ste#200
Duluth, GA 30096
남상우(시몬), 남수진(세실리아)

강형기 카이로프랙틱
교통사고 전문
강형기 (사도요한)
770-495-0014
678-468-0985
3585 Peachtree Industrial Blvd #102 Duluth, GA 30096

박지연 부동산
770-687-0750
office: 770-557-1867
Bestrealtor4989@gmail.com
King Star Realty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lcpa.com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홈페이지: http://www.kmccga.org
E-mail: kmccga.office@gmail.com | Tel 770.455.1380 Toll free 888.222.9218 | Fax 770.455.4262

제1974호 | 2019년 1월 20일 | 연중 제2주일 | 발행인: 이재욱 요한 신부

- † 미사 시간
일: 오전 8시 30분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15분(영어)
월: 없음
화: 정오 12시
수: 오후 7시 30분
오후 8시 (구역미사)
목: 오후 7시 30분
금: 정오 12시
토: 오후 7시 (특전미사)

† 고백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혼인 성사
6개월 전까지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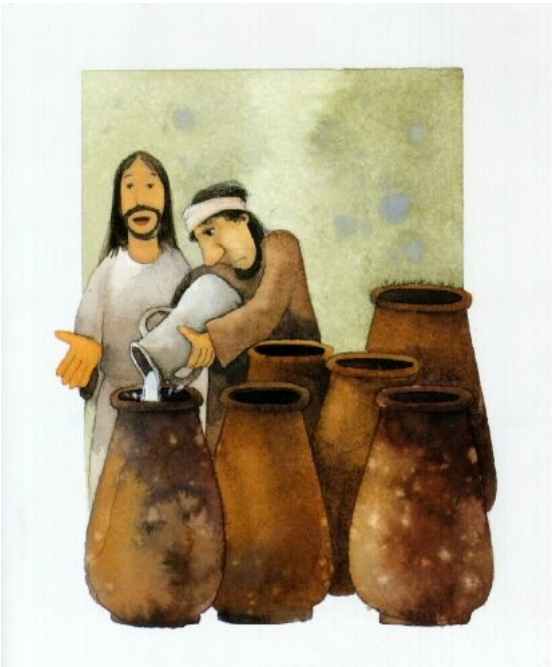
† 유아 세례 / 병자 성사
사무실로 연락

† 사무실 시간
일: 오전 7:30-오후 3:00
월: 휴무
화 ~ 금: 오전 10시-오후 6시
토: 오전 10시-오후 6시

† 본당신부
이재욱 요한
Johan Chae-uk Lee, S.J.
lcujhnsj@hanmail.net

† 보좌신부
김형철 시메온
Simeon Hyung Chul Kim, S.J.
grisanchung@daum.net

† 사목회장
왕일모 미카엘
Michael Il Mo Wang
352-359-2151
kmccga.chair@gmail.com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요한 2,1-11〉

성 가 입당: 62 봉헌: 218, 210 성체: 160, 183 파견: 77
제 1 독서 이사야 62,1-5 <여기에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화답송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제 2 독서 1고린토 12,4-11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 음 요한 2,1-11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

- 이수진(브렌다노)
- 김계환(안토니오)
- 민병숙(라파엘라)
- 조경희(글라라)
- 이창욱(크리스티나)
- 김송옥(데레사)
- 채종현(아오싱딩)
- 이금숙(세실리아)
- 박정자(데레사)
- 박재봉(베드로)
- 김미영(인덕마리아)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19년 부활절 영세를 위한
성인 예비신자들을 위해

전례분과

김상순 770-820-9132

구역분과

남현석 770-827-9987

성모회

서차영 770-723-0380

대건 한국학교

노시현 678-677-3515

예비신자 교리반

이연숙 404-293-9319

선교분과

레지오 마리아

박순기 678-793-5881

성령기도회

김성애 678-779-1387

울뜨레아

조경희 404-610-8086

M.E.

손영덕 678-896-1837

C.L.C.

김옥경 770-912-8282

9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세계 교회사 100대 사건

— 20C 냉전 녹인 평화의 사도

131개국 찾아 용서 화해 사랑 촉구 고르바초프 만나 '냉전 청산' 길 터



← 1984년 한국을 찾은 교황이 사제서품식을 주례하고 있다.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양대 전쟁으로 얼룩졌다. 그 중 하나인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대량 살상 무기를 서로에게 겨누는 채 지구촌 곳곳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군비경쟁에 열을 올렸다. 이른바 냉전(Cold War)의 시대였다. 냉전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평론가 W. 리프먼이 저술한 「냉전」(The Cold War, 1947)이라는 논문에서 비롯됐고 미국의 재정 전문가이며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버나드 바루크가 의회토론에서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다.

한반도의 분단을 포함해 인류를 양분했던 비극적인 대립 체제로서의 냉전은 이후 상대 진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 경쟁, 자칫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양상이 다른 핵전쟁의 위기까지 감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동서 냉전은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붕괴와 구 소련의 몰락이 대결과 분열의 시대를 끝냄으로써 종말을 고하게 됐다.

비 이탈리아계 교황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처럼 동서가 서로 갈려 서로를 노려보던 시기에 교황으로 선출됐다. 1978년 10월 16일, 시스틴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 올랐다.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한 뒤 세계는 그 뒤를 이을 교황을 열렬히 기다려왔기에 전통적으로 새로운 교황의 탄생을 알리는 흰색 연기를 본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이어 커다란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제264대 교황으로 선출된 카롤 보이티야, 그는 이탈리아 출신이 아니었다. 더욱이 공산국가 폴란드 출신으로 크라코프 대교구를 맡고 있던 추기경이었다.

1523년 네덜란드 출신의 하드리아노 6세 교황 이래 무려 455년만에 탄생한 비 이탈리아계 교황, 그것도 공산국가 출신의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된 데 대해 사람들은 다시금 하느님의 섭리를 공공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새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 받으소서』라고 외쳤다. 잠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윽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102차례 해외 순례

서로 분열돼 증오와 미움의 고리에 얽혀 있던 세상은 이제 새 교황의 탄생을 통해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느님의 구원 경륜에 새삼 감탄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와 희망은 「평화의 사도」로서 세상을 순례하며 용서와 화해, 사랑을 구현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발걸음으로 현실화된다. 교황은 즉위 이듬해인 1979년부터 본격적인 해외 순방에 나선다. 그 해 1월 중남미의 멕시코와 도미니코 공화국 방문을 시작으로 슬로바키아 방문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 무려 102회에 걸쳐 131개국을 방문했다.

교황의 해외 순방은 대개 사목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 지역의 모든 갈등과 분쟁을 완화하고 사람들의 가슴에 숨겨진 평화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화해와 용서를 이끌어내곤 했다.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났던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평화를 호소했고 1991년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면서 인종학살이 자행되자 이를 비난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1999년 코소보 전쟁 때에는 유고에 특사를 파견했고 지난 봄 이라크 전쟁 때에도 비극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도 교황은 1989년 12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와의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냉전의 시대를 청산하는 초석을 놓았다. 이어 1990년 4월에는 또 다른 공산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했다. 1998년에는 쿠바를 방문해 닫힌 문을 세계로 열어젖혔다.

그에 앞서 1997년에는 4월과 5월에 레바논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역을 잇달아 방문했고 대회년에는 성지를 방문해 중동 평화의 회복을 위한 또 다른 전기를 마련했다. →

김옥경 부동산
에밀리 김
Associate Broker
(C) 770-912-8282
(O) 404-843-2500
Better Homes REAL ESTATE
metrobroskers

리 장례식장 (귀넷)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넷: 770-622-2525

문세호 (시메온) 변호사
이민, 파산, 세금, 채무관계, 가정법
770-755-5388 Sehomoon@yahoo.com

음악과 테니스
한 장소에서!
김영혜 (가타리나)
자체 테니스 코트 6개를 갖춘
전문 테니스 학원 &
33년 전통과 실력의
AMA 음악학원 2호점
1호점 Suwanee
2호점 Sugarhill
770-862-4223

이크리스티나 보험 금융
678-665-3882
은퇴/연금/교육/생명보험

정승옥 변호사
(미카엘)
이민·입양·클로징·상법·유언
무료상담 전화 770.495.9994

확실한 카이로프랙틱
더조은 척추
박찬규 (레오)
운동상해 (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대건한국학교 2018-2019학년도 봄학기 등록안내
·모집대상: Pre-K(만 4세) - 고등학생, 성인
·수업기간: 2019년 1월5일~4월27일 (16주간)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09:15-12:30
·수업내용: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특활과목: 난타(북, 장고), 서예/한국화, 미술, 동화/연극, 태권도, 가베(유아반)
·주요교내행사: 추석/설날잔치, 가을운동회, 낱말/받아쓰기/동요/동화/발표력대회
·등록일자: 4/21~4/27 (추가등록: 5/4~8/11)
·등록금: 한자녀 \$210/ 두자녀 \$370/ 세자녀 \$520 (교재, 간식, 교지\$10포함)
·등록장소: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교무실 또는 본당 사무실)
Tel 770-455-1380 / Fax 770-455-4262 / Email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Payable to: KMCC Daegon Korean School

등록 장소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연락처** 678-677-3515 노시현 (네오미시아)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우편접수가능/등록원서다운** (<http://kmccga.com/xe/office>)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안내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구입금액의 0.5%를 아마존이 본당에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용방법**
- 1). smile.amazon.com 을 이용하여 아마존스마일로 들어갑니다.
 - 2). Choose Charities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지정합니다.
(주의: 비슷한 이름의 성당이 있으니, Doraville, GA에 있는 성당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 3). 계속 smile.amazon.com 을 이용해 shopping 합니다.

비즈니스 익스프레스를 아마존 스마일과 연계할 경우, 본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 나창섭 (678-357-6381)/박형근 (770-861-2553)

명품 중식 레스토랑
만천홍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T. 770.454.5640
5953 Buford Hwy, Suite#105 Doraville, GA 30340

RADFORD & KEEBAUGH
www.DecaturLegal.com
근로법·노동법 (Employment Discrimination, FMLA, Minimum Wage, Tip Credit, Overtime)
/헌법소송/기타 민사소송 전문
이승은 제르투르다 (Gertrude) 변호사
T: (678) 271-0304
Email: april@decaturlegal.com
315 W. Ponce de Leon Ave. Suite 1080 Decatur, Georgia 30030

2019년 AA 기금 납부 현황 (1월 13일 현재)

교구 할당액: \$57,100 금주 납부액: \$770 누계 납부액: \$3,514

2019 AA 기금 금주 납부자 (총 12명)

강규상 남현석 박성도 박재현 박정옥 박평하 서혁규 송기호 송정길 장춘자 전근섭 최한수

* 2019년 AA 기금 Announcement Weekend: 2월 16일/17일 Commitment Weekend: 2월 23일/24일

우리 공동체의 이모저모

<장례 미사> →

1월 9일(수) 오후 12시에故 강필녀(세실리아) 님의 장례미사가 대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장례 미사> →

1월 14일(월) 오후 12시에故 조남경(필립보) 님의 장례미사가 대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

1월 13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소성당에서 열린 꾸리아 월례회의에서는 '사랑의 모후'와 '은총의 모후' 브레시디움의 사업 보고와 공지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 <예수회 후원회>

주일 친교실에서 2018년도 예수회 후원금 Tax Report



를 전해 드리오니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방 기도회>

매 주일 오전 9시 114호실에서 다락방 기도 모임을 갖



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교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신년기원(新年祈願) 김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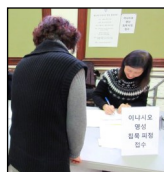
몸 되어 사는 동안
시간을 거스를 아무도 우리에게 없사오니
새로운 날의 흐름 속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희망-당신의 은총을
깊이깊이 간직하게 하소서

이 흐름의 노래 속에
빛나는 제목의 큰 복소리 산천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2019년 부활 영세 교리반> ↑

매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12호실에서 교리반 수업이 있습니다.



← <이나시오 영성 피정>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Conyers 수도원에서 있을 피정의 참가 신청을 주일 친교실에서 접수 중입니다.

애야, 네가 책임져라 <요한 1,11>

배영길 베드로 신부

애야,
네가 데려온 친구들이 술을 다 마셔 버렸다.
네가 좀 어떻게 하여라.

어머니, 내가 어찌라고요.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책임져라.

왜, 저런 이들을 몰고 와서는...

한둘도 아니고...

별 수 없다.

“저기요, 저 통에 물 좀 채우세요.”



오늘 복음에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야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 이후 첫 기적을 묘사하고 있는 복음은 묵주기도 빛의 신비 2단에서 늘 묵상하게 되는 친숙한 장면입니다.



오늘 복음 산책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야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요한 2,1-11>

오늘 복음으로 새롭게 만나는 ‘조용한 첫 기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기적이 완성되기 전에 ‘이전에 본적도 없는 기적’을 너무도 당연히 기대하시는 성모님의 모습. 성모님의 예수님에 대한 무한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여, 확신에 찬 단 두 마디로 기적을 행하시고 확인하시는 예수님은 ‘한번도 행한 적이 없는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져서 속이 바짝 타고 있을 신랑 신부 가족의 일꾼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포도주의 기적에 안도했을 그들의 큰 기쁨과 놀라움. 이 조용하지만 엄청난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의 상상할 수 없는 안도의 기쁨. 우리가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상상해 본다면, 아마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한 우리 모두는 온 세상을 향해 미치도록 소리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놀란 가슴에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을. “ 그 분이 정말 오셨

다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사랑’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과 많이 닮아 있는듯합니다. 혼인의 결실을 맺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사소한 수 많은 조용한 기적들은, 기적의 수 만큼이나 다양하지만 그 중심 과정은 하나입니다. 마음 안에 깊게 자리잡은 간절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하고 확인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의 조용한 기적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사랑의 기쁨으로 빛나던 소중한 기적의 순간을 말합니다.

오늘 복음처럼 ‘포도주의 기적’이 가능하게 가득 물을 채울 수 있는 물독과 같은 ‘빈 마음’의 깊이를 생각해 보는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 중국과 러시아 방문 염원

교황은 이처럼 평화를 위한 세계 순방 중에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1981년 5월 저격범의 흉탄에 쓰러졌고 1992년에는 담석 제거 수술, 1994년에는 숙소에서 넘어져 순방 일정을 연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술을 받기도 했다. 교황은 고령에 파킨슨병과 관절염 등으로 고통을 겪는 등 육체적으로 쇠약한 모습을 숨길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교황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여전히 초인적인 의지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평화의 메시지와 복음을 전해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간절히 방문하기를 원하는 곳이 두 곳 있다. 하나는 중국이다. 중국 순방은 교황의 가장 열렬한 희망이다. 제 삼천 년 기 세계 교회의 중심은 아시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아시아 복음화에 가장 큰 과제이다.

러시아 방문은 교황의 또 다른 염원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전의 여러 대통령들이 교황의 방문을 요청했지만 정교회와의 관계가 큰 걸림돌이 되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지만 정작 교황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가톨릭 신문, 박영호 기자]

우리들의 정성 (2019년 1월 13일)

본당 미사참례 인원		총 694명	
특전 미사	91명	오전 8시 30분	118명
오전 10시 30분	388명	영어 미사	97명
성물방	\$ 130.00	주보광고비	\$ 480.00
교무금	\$ 7,470.84	주일 헌금	\$ 4,730.00

교무금 봉헌 하신 분 (2019년 1월 13일)

강규상 (1)	박형근 (12~1)	이명환 (1~3)
계춘자 (1)	방영택 (1~2)	이석균 (1)
곽성숙 (1)	배정율 (1)	이순섭 (12)
김경숙 (1)	서상희 (1)	이완 (1~2)
김동윤 (12)	서혁규 (1~2)	이희순 (1)
김면기 (1)	손철영 (1)	장승희 (12~1)
김영혜 (1)	송정길 (1~2)	장영춘 (3~4)
김준호 (1~3)	심충섭 (1)	장중순 (1)
김철석 (1)	엄정인 (1)	전성천 (12)
김호진 (12)	오상수 (1)	정희웅 (1)
김홍자 (1~2)	우정미 (1)	조기영 (1)
나창섭 (1)	원용방 (12~1)	주인국 (1)
남현석 (1)	유옥희 (1)	천병호 (1)
노종업 (1)	유중현 (1~6)	최동순 (1~3)
박성도 (1)	윤봉권 (1)	최인영 (1)
박재강 (1)	윤성진 (1)	최한수 (1)
박재영 (12)	이경우 (1)	한성인 (1)
박정옥 (1)	이남순 (12)	현춘자 (1)

【 본당 알림 】

- ◆ 교무금을 내실 때 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필히 연락하길 바랍니다. (이수진 브렌다노: 404-933-8233)
- ◆ 혼인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필히 사무실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사무실: 770-455-1380)
- ◆ 가정에서 보관 중인 연도책은 성당 사무실로 반납바랍니다.

전례 봉사자

날짜	해설	독서	복사
1/19 (토) 오후 7:00	고승찬	정영상 이지원	권혜민 전지연
1/20 (일) 오전 8:30	남수진	김춘자 이영숙	장재혁 박채효
1/20 (일) 오전 10:30	이진화	박재현 박줄리	조영훈 이준하 박시현 이하윤
1/20 (일) 오후 12:15	Daniel Kim	Thomas Lee Rosa Kim	신준호 안상우
1/26 (토) 오후 7:00	홍지희	이재돈 김채현	신준완 남소호
1/27 (일) 오전 8:30	강창미	전홍 최인경	김채빈 최예은
1/27 (일) 오전 10:30	박줄리	이국진 이정란	오다운 오유진 김태환 김아론
1/27 (일) 오후 12:15	Jenny Choi	Matthew Seo Deborah Seong	이유나 소현서

전례 담당 구역

1/20 (일)	연중 제2주일	Marietta 사랑
1/27 (일)	연중 제3주일	Marietta 자비
2/3 (일)	연중 제4주일	McCumming
2/10 (일)	연중 제5주일	South Atlanta

점심 봉사 및 주차 봉사

일	자	점심 봉사	주차 봉사
1월	20일	McCumming	울뜨레야
1월	27일	Tucker	빛과소금
2월	3일	성모회	CLC
2월	10일	Alpharetta-1	성령기도회

구역 미사

2/6 (수)	Johns Creek-2 장소미정	오후 8시
2/20 (수)	Marietta 나눔 장소미정	오후 8시

◆교구 2차 헌금 (Archdiocesan Hispanic Ministries)이 1월 19일/20일에 있습니다.

설날 합동 연령미사/ 설날 행사

- ◆**설합동 연령미사 및 설 상차림 안내**
-**설 합동 연령미사**: 2월 2일 (토) 특전 미사와 2월 3일 (일) 주일 미사
-**상차림**: 2월 2일(토) 특전 미사와 2월 3일 (일) 오전 8시 30분/10시 30분 미사는 설 합동연령미사이며, 상차림 예절이 미사 15분전에 있습니다.
-**설날 행사**: 2월 3일 (일), **친교실** 오후 1시 ~ 오후 3시
▶성모회에서 준비한 점심식사 (떡국, 김치) 후 구역 율놀이 행사가 있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월 3일 (일) 오후 12시 15분 영어 미사**는 봉헌됩니다. 미사 후 청소년에게 별도의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문의: 김상순 (770-820-9132)

피정 안내

- ◆**제 19차 이냐시오 영성 침묵 피정**
지도: 이재욱 요한 본당 신부님
주제: “하느님 자비의 여정”
일시: 2월 13일~17일 (4박5일)
장소: Conyers 수도원 (Monastery of the Holy Spirit)
참가비: \$ 400 (숙식 포함)
문의: 김옥경 (770-912-8282)
유재일 (678-770-1136)

모집 안내

- ◆**2019년 부활 견진 성사**
내년 부활절에 함께 있을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가 2019년 2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8주 동안 112호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접수**: 사무실
문의: 이연숙 (404-293-9319)

- ◆**2019년 페루 단기선교 봉사자 모집**
장소: 페루 비아 엘 살바도르
일시: 5월 23일 (목)~ 6월 4일 (화)
대상: 건강한 대학생 이상 ~ 65 세 이하
인원: 8~10명, (어른 5명/청년 5명)
▶신청자는 처음 모임부터 10주간 주말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야함.
봉사내용: 집짓기 노동, 율동 & 찬미, 태권도 교실, 영어 교실)
문의: 최준태 kimchoipc@bellsouth.net

- ◆**예비 복사 모집**
대상: 첫영성체를 받은 3학년 이상 학생
문의: 김시윤 (470-208-0209)
kmccga.asa@gmail.com
- ◆**방어 운전 교육**
일시: 1월 27일 (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소성당
교육비: \$20 (교재비용과 수수료 포함)
문의: 서미영 (404-610-0057)
- ◆**유아 세례식**
일시: 2월 2일 (토), 오후 3시, 대성전
문의: 사무실 (770-455-1380)

정기 모임

- ◆**전례분과 월례 회의**: 1월 20일 (일) 오후 12시 30분, 108호
문의: 김상순 (770-820-9132)
- ◆**Marietta 자비반 모임**: 1월 20일 (일) 오후 12시 30분, 정창래 형제님택
문의: 김영환 (770-594-3234)
- ◆**구역 성경 나눔 봉사자 모임**
일시: 1월 27일(일) 오후 12시 15분
장소: 110호
문의: 이숙자 (678-665-3882)
- ◆**등대회 모임**: 1월 27일 (일) 오후 12시 30분, 110호
문의: 임창현 (678-698-0515)
- ◆**요셉회 모임**: 1월 27일 (일) 오후 12시, 3층 성가대실
▶치매에 관한 강의를 있습니다. 요셉회 회원이 아니어도 참가 가능.
강사: 송 벨라니아
문의: 황재숙 (862-222-0548)

교구 및 기타 소식 안내

- ◆**루가 의료 봉사회 당뇨 무료 검사**
매월 첫째 주일에 실시하는 건강 검진의 일환으로 무료 당뇨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확도를 위하여 검사 전 6시간 공복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일시: 3월 3일 (일) 8:30am~12pm
장소: 한국순교자 성당 친교실
문의: 정건호 (770-491-1191)
- ◆**교구로부터 2018 AA기금 Rebate \$3,697.20을 수령하였습니다.**
- ◆**Bookkeeper 모집**
본당 재정업무를 도와 주실 Bookkeeper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실 (770-455-1380)
- ◆**예수회 후원회 Tax Report**
2018년 예수회 후원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친교실 예수회 후원금 접수처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정원 (678-779-4865)
- ◆**초축복**: 1월 27일 (일) 오전 10시 30분 미사
▶가정초 축복을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초를 미사전에 제대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 ◆**故 박재강 (그레고리오)님의 추모연도**가 1월 25일 (금) 낮 미사 후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당 학교 안내

- ◆**주일 학교 안내**
*중.고등부 세례/견진성사 교리반 모집
문의: 남수진 (770-846-4406)
- ◆**토요 대건 한국학교**
문의: 노시현 (678-677-3515)

감사합니다

- *지난 1월 14일 **故 조남경 (필립보)님** 연도 및 장례미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1월 15일 **故 이재일 (그레고리오)님** 연도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